

맹독수는 포함한 폐형광등 깨뜨려 일반 쓰레기봉투에

생활속 수은 중독 비상 **무방비 노출 실태**

형광등 1개 토끼 죽사 시킬수 있는 25mg 함유
1년 1억4000만개 중 1억개 쓰레기로 버려져

광주시 광산구에 사는 주부 박모(30)씨는 마트에서 형광등을 사러다 깜작 놀랐다. 인근 하남산단 전구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자 수은중독 사고를 떠올려 형광등 제품을 샀는데, 모든 제품에 수은 함유 여부가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궁금한 마음에 제조사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모든 형광등엔 수은이 들어간다. 그런데 따로 표기하거나 취급을 주의하라는 안내는 하지 않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우리 사회가 수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수은 함유 제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형광등 1개에 든 수은만으로도 토끼 한 마리를 죽사시킬 수 있는 양(25mg)이 포함돼 있지만, 시중 마트나 철물점에서 팔리는 형광등에는 수은 함유 사실조차 표기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유통되고 있다. 온라인 매장에서 취급하는 수은 형광등도 수명이나 밝기를 선전하는 내용만 가득하다.

연간 1억4000만개의 형광등이 시중에 풀리고 있는 점, 수은의 맹독성을 감

안한다면 제품이 수은 함유 사실, 위험성, 폐기물 처리 절차 등이 필수적으로 표기돼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지만 당국의 느슨한 규제에 의해 맹독성 물질인 수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은 건전지도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이 포함된 만큼 수거와 폐기 과정이 엄격해야 하지만 폐전지 수거함이 설치된 곳도 극히 드물고, 유해성을 인식하는 시민들도 적어 관리도 엉망이다. 의료용으로 쓰이는 수은 체온계·혈압계도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수은 제품의 유통에서조차 제대로 규제가 이뤄지지 않으니 폐기물의 수거나 최종 처분 또한 곁돌고 있다.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 따르면 국내 폐형광등의 수거율은 3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형광등이 약 1억4000만개 가량임을 감안하면 연간 1억개 정도가 아무렇게나 매립되고 있다는 것이다.

폐형광등은 주민들이 아파트단지나 주민센터 수거함에 버리면 지방자치단

체가 수거해 한국조명재활용공사에서 처리한다. 학교, 병원 등 사업장에서 나온 폐형광등은 한국조명재활용공사가 수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폐형광등 잘게 부서진 채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겨 매립장으로 가는 게 태반이다. 수은 체온계·혈압계도 현행법상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생활 폐기물과 함께 처리되고 있다.

정부는 수은을 맹독성 유해 중금속으로 인식하면서도 수은 제품의 제조·유통·회수·폐기물 처리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말 국제수은협약 가입에 대비해 작성한 문건만 살펴봐도, 당국은 연간 배출되는 수은의 총량을 92t으로 ‘추정’만 할 뿐 구체적인 통계는 물론 회수되는 수은의 총량도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형광등 이외의 수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은을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저장·처리 시설, 전용(차단형) 매립시설도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철갑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제라도 수은과 수은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제조·유통·폐기물 처리 등 전반적인 상황을 총괄하게 규제해 국민 건강과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기자 khh@



다문화가정·北이탈 주민 ‘마음나눔 김장 담그기’ 다문화가정 여성과 북한이탈 주민들이 함께하는 ‘마음나눔 김장 한마당행사’가 11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광주여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가한 한 이주여성(가림)이 직접 담근 배추김치를 맛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빛원전 관막음 허용 기준치 상향 철회하라”

영광 주민·환경단체 반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영광 한빛원전 3·4호기의 핵심설비이자 고장이 잇따르는 증기발생기 세관의 관막음 허용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자 영광지역 주민들이 원안위 항의 방문을 예고하고 환경단체가 철회를 촉구하는 등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원자력 전문가와 한빛원전 인근 주민들은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을 직접 거명하면서 한빛 3·4호기와 쌍둥이 원전으로 불린 한울 3·4호기 증기발생기 결합에 대한 대처 방법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빛원전감시위원회는 11일 “영광주민들은 한빛 3·4호기 제작, 건설 당시 인코넬 600 소재로 된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해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당시 세계적 추세는 인코넬

600 재질의 증기발생기에서 문제가 드러난 시점이었지만 정부가 건설을 강행한 결과 설계 수명의 절반 수준에서 교체가 예정되는 등 결함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시위원회는 이어 “원전 규제 당국이 이제 와서 기존 8%였던 증기발생기 관막음률을 18%로 일방적으로 상향하라는 것은 원전의 안전성과 주민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오는 13일 서울 원안위 항의 방문 계획을 밝혔다.

감시위원회와 전문가들은 특히 한빛원전 3·4호기와 한울 3·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결합 정비 방식에 대한 원안위의 입장 변화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울 3·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에서 결함시 세관을 정비해 재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해놓고서 한빛원전 3·4호기 결함을 정비할 땐 세관을 관막음하는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오락가락했다는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 관막음 허용 기준치를 일방적으로 상향 조정할 승인을 철회하라”고 원안위에 촉구했다.

이 단체는 “증기발생기 관막음 허용 기준치는 안전 기준치로서 원안위가 사업자인 한수원의 신청을 받아 완화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핵 발전소의 안전 모두를 포기한 위험천만한 실책”이라고 규정했다.

원안위는 지난 9일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의 관막음 허용 기준치를 설계 당시 8%에서 18%로 올려달라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요청을 승인했다. 한빛 3·4호기는 설계 수명의 절반 수준인 오는 2018년, 2019년께 각각 증기발생기 교체가 예정되는 등 결함 발생과 노후화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적십자사 무인 모금함

통째로 훔친 20대 등 입건

광주서부경찰청은 11일 대한적십자사 사랑의 모금함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백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김모(17)군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백씨 등은 지난 8일 새벽 5시 30분께 광주 서구 광동동 버스종합터미널 안에 있던 대한적십자사 사랑의 모금함을 통째로 들고 달아나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30만원을 훔친 혐의다.

이들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점점방과 교회 등에서 현금, 휴대전화, 오토바이 등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양심을 믿고 설치된 무인 모금함이 가출청소년의 범행 표적이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또 지게차 사망사고... 대불산단 20대 숨져

산단단지 내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11일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1시10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내 A중공업 작업장에서 마모(27)씨가 박모(45)씨가 몰던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A중공업 협력업체 직원인 마씨는 이날

선박 부식 방지 장비를 점검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에서 “화물이 시야를 가려 마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5일 오후 3시10분께는 광주시 광산구 옥동 평동산단 내 B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이모(34)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김형호기자 kki@

유형업소 ‘도우미’ 협동조합까지 만들어 독점 공급

협동조합까지 만들어 유형업소에 이른바 ‘도우미’를 독점적으로 공급한 조직 폭력배와 보도방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직접안정범위법)로 조직폭력배 양모(41)씨와 보도방 업주 박

모(39)씨 등 2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협동조합을 결성한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보도방을 운영하며 광주의 유형업소에 도우미를 공급, 24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훔친 표지판 부착 ‘대표 어선’으로 가을전어 싸늘이



이른바 ‘대표 어선’으로 가을철 별미인 전어를 싸늘이한 일당이 쇠고랑.

○...무등록 어선을 구입한 뒤 훔친 어선표지판(어선번호판)을 부착한 이...
○...11일 완도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구속된 이모(34)씨와 불구속 입건된 선원 등 3명은 지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2.7t급 무등록 어선을 이용해 완도군 약산과 강진군 마량 해역에서 700kg가량의 전어

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 ○...이씨 등은 강진군 마량항에서 전모(40)씨의 선박 어선표지판을 훔쳐 자신들의 무등록 어선에 장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같은 어선표지판을 부착한 수상한 배가 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덩미.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유)수호부동산중개법인은 법원경매 낙찰대리업무, NPL(부실채권)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질권대출, NPL매입,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전국 최저금리!! 전국 최고 한도!! NPL 잔금 5.2~5.9% 중도상환 無

(유)수호중개법인 물건 광고					
광주지원	2014타경 30504	주택	군산지원	2012타경 7036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0736	상가	남원지원	2015타경 377	공장
순천지원	2014타경 7817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전주지원	2015타경 8853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5타경 1428	공장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6914	임야
전주지원	2015타경 5779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9078	사무실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수원지원	2015타경 9386	근린시설
정흥지원	2015타경 605	공장	서울동부지원	2015타경 3901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30627	공장	남원지원	2015타경 179	아파트
전주지원	2015타경 3629	공장	의정부지원	2013타경 16018	임야
순천지원	2015타경 2628	공장	광주지원	2015타경 375	의료시설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목포지원	2013타경 727	근린시설
군산지원	2014타경 9739	공장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삼화/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 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 기업입니다.

부동산 중개 및 부동산 경매, NPL 업무에 관심있거나 참여하실분 선정 모집합니다.

NPL매입, 중개, 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 대출 지원 담당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수호 부동산중개법인

사업자등록번호 464-88-00084 / 법인등록번호 200114-0058676